5번방의 기적

저는 12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13년에 조혈모 골수 이식을 받은 후 이식숙주편대 반응(부작용)으로 장, 간, 눈, 피부, 폐 순으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독감, 폐렴으로 16년부터 산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며 살다가 18년 8월에 결국 폐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중환자실엔 16년 1월부터 3월까지 폐렴과 독감으로 약 2개월, 18년 7월부터 19년 1월까지 폐 이식으로 약 7개월간 내과계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 중환자실과의 첫만남

중환자실에 처음 가게된 것은 선배언니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 날, 그 곳이 선배언니를 본 마지막 순간이자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중환자실에 대한 첫 인상은 가족의 품을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6년 저는 폐렴과 독감으로 호흡의 문제로 정신이 잃었고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어느 날 밤 어두운 느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새벽동안 제 앞에 계신 환자분이 가족의 품을 떠나셨어요.

중환자실에서 또 다시 느낀 것은 제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도 몸은 회복되어 산소와 인공호흡기 처방을 받아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 다시 만난 중환자실 - 두려움

그렇게 시간이 지나 18년 7월. 폐 이식 검사를 위해 입원했는데, 당시 이산화탄소 수치가 너무 높아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요. 입원하고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다시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기계로 호흡이 되지 않아 에크모(기계를 통해 피를 이산화탄소를 거르고 다시 몸에 넣는 것)를 달고 숨을 쉬었습니다. 하루라도 이식이 늦어지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게 폐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 이식 이후 오는 통증과 근육이 소실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 발가락 외엔 움직이는 것은 물론 물 마시는 것, 베개 고치는 것 등도 할수 없는) 무능함을 느끼며 괴로웠고 이 상황이 화가 났어요.

또 제게 다가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질환의 치료가 끝나지 않을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아픈 곳이 더 늘어갔고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중환자실의 기계 외엔 호흡이 안되어 중환자실에서 평생 살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다가온 걸을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발가락, 손가락 외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담당교수님은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끝내 전 일어나지 못했고 겨우 앉혀놓으면 굴러 눕기만 했습니다. 다리 들기는 0.01센치도 들지 못 했습니다. 제 눈에는 걸을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의 두려움이 절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근육통, 다리저림 등이 있었지만 신장이 좋지않아 투석까지 이르게 된 제게는 진통제, 안정제등은 쓰지 않으려했으니 그 고통을 참아야했습니다. 그리고 다가 올 고통을 미리부터 걱정했습니다.

▶ 생각의 전환,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두려움이 있다고 무능하고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마음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무능함과 두려움이 있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고 제 상황이 바뀔까요? 제가 그저 무능하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상황이 바뀔까요? 아마 아픈게 더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전 집중할 것이 필요해서 TV를 보려 했지만 안구건조증으로 각막의 상처, 백내장으로 눈을 뜰 수 없이 아파 틀어놔도 소리만 들을 수 있었어요. 당연히 집중 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 중 찾은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냥 막 무언가 색칠할 때 기분이 나아졌었던 기억이 떠올라 스케치북과 사인펜을 가져다 달라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가까이 있는 의료진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들과 가까워지며 그들에게 제가 그린 꽃 그림을 하나씩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그저 평범한, 지루한 일상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글을 썼어요. 그렇게 글과 그림이 하나 둘씩 모이자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중환자실 벽면에 글과 그림을 걸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는 제가 삶을 살면서 자주 느끼는것입니다. 이 의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지키며 버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고통과 병을 이겨야지'라는 굳은 의지를 갖기보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온 힘으로 숨쉬고 버텼어요. 폐렴이 왔을 땐 잘 먹는 게 중요하다 하셔서 온 힘을 다해 먹었어요. 얼굴, 손, 발을 제외하곤 움직일 수 없어 재활을 받아야 했어요.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온 몸이 아팠지만 울면서 자전거를 타기도 했어요. 그게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밤마다 지독한 통증이 오는데도 신장이 안 좋아 진통제와 수면제를 쓸 수 없어 참아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밤에 잘 자고 싶어 낮잠을 자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투석 받을 때 받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참을 수 없어 방법을 고민하다가 정신을 다른데 돌리기 위해 사탕과 초콜릿을 먹으며 그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통증이 심하고 누워만 있어 시간이 잘 가지 않아서 그림 그리기 또 화가 날 땐 종이 찢기 등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려했어요. 그것이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그대로 된다.

폐 이식 전에 오랫동안 먹었던 스테로이드류 복용으로 골다공증이 생겨 허리 뼈가 내려앉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호흡이 점점 나빠져 자는 것, 먹는 것까지도 힘들어졌어요. 매일 밤이면 갑자기 주저앉은 허리의 통증이 유독 컸어요. 이건 흡사 갑자기 몸에 폭탄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앉고 걸으려고 할 때마다 고통이 심해 눈물 흘리기 일쑤였고 통증의 두려움에 움직일 때마다 매번 용기를 달라 기도했어요. 사실 그 때 제가 죽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통증에 시달리다가 입원하고 중환자실에서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었음에도 힘들다는 말은 했지만, '힘들어 죽겠다', '이럴 바엔 죽는 게 나아'라는 '죽는다'는 생각이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퇴원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이식 직전에 겪었던 극심한 고통이 죽음에 이르고 있단걸 전 알고 있었어요. 이식 이후에 정말 힘들 때도 많았지만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 수 있음을 느꼈고 그 이전의 힘듦보다는 견뎌낼 수 있었기에 힘들어도 '죽고 싶다', '죽는게 낫다'라는 말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폐 이식 이후에 폐에 물이 차고 폐가 접혀있어 호흡이 되지 않자 주치의사 선생님께서는 환자실에 있는 호흡기로만 호흡이 되니 중환자실에서 남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 하셨었어요. 가족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죽을 것이라 속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은 제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대해주셨어요. 매일 면회 오고 마사지도 해주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 삶은 정말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중환자실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면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미술과 글쓰기로는 좋은 점수도 상도 한 번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환자실 방에 제가 그린 그림과 쓴 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본 의료진들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을 해주시고, 제가 머무는 '5번 방을 들어오면 따뜻하다', '동화 속에 들어 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수간호사선생님께서 저의 그림과 글로 중환자실 복도에 전시회를 열어주셨어요. 다른 중환자실 의료진 선생님들의 응원 메세지들도 전시회 게시판에 붙어주셨어요.

의료진들이 출퇴근길에 인사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간식거리도 사다주셨어요. 가을 하늘과 낙엽을 보고 싶어 하는 제게 사진과 낙엽을 주시기도 했죠. 악성변비가 왔을 때는 선생님들이 릴레이처럼 들어와 배 마사지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모든 이들의 사랑이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무능함에 대한 자괴감을 이길 수 있게 해주었어요.

▶ 희망의 아이콘이 되다.

지난 병원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면 기억나는 단어는 "따뜻함, 희망,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없었던 제가 걷고 산소 인공호흡기없이 호흡하는 것으로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은 제가 머물던 5번방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힘든 다른 환자에게 제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병동에 올라와서 만난 유방암 진단 검사하러 온 환자가 스트레스로 고생했을 때 섣불리 미래를 단정짓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환자 보호자님께서 퇴원하시면서 희망을 줘서 감사하며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게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건강한 이들에게는 살아있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기적임을, 아픈 이들에게는 그들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또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살고 싶어하는 오늘을 사는 당신이 오늘 하루 즐기며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더욱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